

30여년 명성 담양 맛집 '목화식당' 문 닫는다

●이달 중순 폐업 앞둔 '목화식당' 김준명·김인성씨 부부

매일 오전 6시-오후 3시 가정식 백반 전문 1인분 8천원
'어머니 손맛' 상차림 전국적 명성 불구 고령에 더 못버터

"아쉽지만, 더 일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담양의 대표적 백반 전문 맛집으로 30여년 명성을 이어 온 '목화식당'이 이달 중순 영원히 문을 닫는다.
목화식당 김준명(83)·김인성(83-여) 부부는 15일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담양 관광객, 아침운동 나온 군민들의 아침밥상과 점심상을 차려 왔지만,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하기엔 힘이 부족 오랜 세월 손님들과 함께 한 밥집의 인연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가 밥집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것은 2년 전이었으나, 주변 지인들과 30년 단골 손님들은 물론, 담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조차 "아침밥은 어디서 먹냐"며 식당을 더 할 것을 권유를 넘어 강요(?)하는 바람에 아들을 설득해 목화식당의 문을 더 열어둔 것이 어느덧 2년이다.

당시 김씨 부부의 아들은 목화식당 인근에서 '덧잇 손만두'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어머니의 뜻을 살피고 만두가게를 접고 목화식당을 함께 운영해 왔다.
그러나 아들이 최근 신축 담양시장 건물에 점포를 얻어 다시 '덧잇 손만두' 가게를 재오픈하기로 하면서 목화식당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김준명·김인성 부부는 "자녀들도 한사코 말리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 식당을 하는 것이 버거워 사실 오래전부터 그만둘 생각을 해왔으나 적지 않은 단골손님들이 계속 운영해 달라고 권유하는 통에 쉽게 그만두지 못한 세월이 꽤 된다"며 "아들이 목화식당을 이어받아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으나 젊은 아들에게는 밥집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목화식당의 '목화'는 목화꽃에서 따온 것으로



담양의 대표적 백반 맛집으로 30여년 명성을 이어 온 '목화식당'이 이달 중순 영원히 문을 닫는다. 사진은 목화식당을 운영 중인 김준명(왼쪽)·김인성 부부.

로 꽃말인 '어머니의 사랑'처럼 목화식당도 30여년간 변함없는 어머니의 손맛으로 2인 이상 1인분에 8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12개 반찬과 국을 곁들인 가정식 백반을 차려 온 담양의 대표적인 밥집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왔으며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 식당이었다.
여기에 식사 후엔 김씨 부부의 구수한 세상사는 얘기 등이 '일품'이었으나 이제 30여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우리들의 기억과 추억 속에 간직하게 됐다.

목화식당의 30년 단골이라는 한 담양군민은 "2-3년 전부터 식당을 접는다는 말을 들긴 했고, 사장님 부부 연세가 있으셔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내심으로는 조금 더, 조금 더 바랐었다"며 "그동안 맛있는 식사를 내준 사장님 내외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편히 쉬시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담양=정승균 기자



담양·무안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담양농협동조합은 15일 "지난 12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3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3천900만원을 지급하는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담양농협은 조합원 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5년부터 자체 예산에서 조합원 자녀 장학금을 지원, 현재까지 총 7억2천만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김법진 담양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과 자녀들을 위해 매년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트를 포함한 담양농협의 모든 사업을 이용하고 담양농협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농협도 최근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들의 자녀 대학생 3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무안농협은 조합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1천561명에게 10억9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노은준 조합장은 "장학금 수상을 축하하며, 고령화로 침체되는 농촌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다도로60-베타서바이벌 '관광산업 활성화' 협약

레저스포츠시설 운영사인 다도로60과 베타서바이벌이 나주지역 레저스포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다도로60에 따르면 이경원 다도로60 대표와 김태호·김일두 베타서바이벌 공동대표, 김호진 전남도의원 및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다도로60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은 다도로60개장 1주년을 맞아 사랑나눔 콘서트 및 서바이벌 사격 체험 등 다채로운 부

대행사도 펼쳐졌다.
다도로60은 영농·카트체험을 접목한 1만9천여㎡(6천여평) 규모의 테마파크로 지난해 4월 설립돼 전국 단체 연수 및 체험 활동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역 관광책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경원 다도로60 대표는 "농촌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순천농협, 베트남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순천농협은 "최근 농협 농촌인력개발센터(순천여신센터 2층)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의 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환영식에서는 입국설명회, 원활한 소통을 위한 번역 어플 사용법, 근로 조건,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이 실시됐으며, 이후 계절근로자들은 현장 설명을 거쳐 영농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교류는 순천농협과 순천시가 베트남 고용노동부와 맺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영농철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단기 인력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도입됐다.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농민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이온순 여사, 손자 재학 GIST에 발전기금 기탁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5일 "지난 12일 물리·광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승재 학생의 조모 이온순(85) 여사가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총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온순 여사, 황승재 학생 및 부친 황정태씨,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물리·광과학과 유은종 부학과장·이상운 교수가 참석했다.
이온순 여사는 "황상 배우는 삶을 강조하며 손자에게도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얘기했는데, 최근 뉴스를 통해 이공계 대학이 힘든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손자가 다니는 학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정태씨는 "그동안 아들이 GIST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며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어머니가 기부한 장학금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철 총장은 "황승재 학생 가족의 GIST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과 나눔에 감사하며, 이번 기부가 GIST 기부 문화 확산에 큰 울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기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영광소방서 드론 구비 지원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영광소방서와 '영광군민을 위한 소방서 드론 구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범위한 재난 현장이나 소방대원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 수색에 필요한 고성능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부는 구조용, 촬영용, 교육·훈련용 드론 구비를 위해 약 9천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원한 드론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통해 소방대원과 군민 안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빛원자력본부 측은 "앞으로도 지역의 대



표기업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목포 신청호시장 우리고추상회 '전남 착한가게' 가입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5일 "목포시 석현동 신청호시장에 위치한 우리고추상회가 전남 착한가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중소 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하며 기부된 금액은 소외된 계층에 지원된다.
김명숙 신청호시장 우리고추상회 대표는 "착한가게에 가입,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목포세안종합병원, 여성 청소년 속옷 교환권 후원

의료법인 해민의료재단 강상진 세안종합병원 이사장은 15일 "최근 관내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속옷 교환권을 연산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연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부터 2년 연속 여성 청소년 속옷 지원 사업을 후원하며 540만원을 기탁했다.
이 사업은 여성 청소년 1인당 10만원 상당의 속옷 교환권으로 지원되며, 여성 청소년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원하는 디자인과 색상을 선택하면 된다.
강상진 이사장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안병원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여주소방화화119구조대, 산악안전지킴이 운영

여주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15일 "봄철 등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 저감을 위해 4-5월 두 달간 여수 영취산 등산로 부근에 산악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악안전지킴이는 봄철 산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인명 구조와 응급처치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등산객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주요 임무는 ▲산악구조·구조활동 ▲간이응급의료소 운영 ▲유동순찰 및 안전산행 지도·산불예방 홍보 ▲등산로 안전시설 점검 등이다.
여주소방서 화학119구조대 관계자는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등산 전 기상 상황 확인, 보조배터리 준비, 체력·수분 보충을 위한 간식 준비, 등산 전 충분한 스트레칭·준비 운동, 음주산행·흡연 절대 금지 등을 준수하고 등산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하산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 산행을 위해 선제적인 사고 대응과 지속적인 예방 순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결혼

▲김경윤(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이태복씨 장남 태홍(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군, 노수근·이명자씨 장녀 지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양=20일(일) 낮 12시30분 센트럴광주호텔&레지던스 파레스가든홀(010-4541-2580).
▲박상훈·김영숙씨 장남 준성군, 이태일·김정숙씨 장녀 은지양=27일(토) 오전 11시 광주 까사디루체 1층 루체홀(062-710-4000).
▲김태수(호남도민일보 광주전남본부장)·이점숙씨 장남 정훈군, 심광철·박정숙씨 장녀 명희양=20일(토) 오전 10시30분 광주 하우스 오브 데메드웨딩홀 1층 르세엘홀(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51-062-228-0000, 010-2682-7080).
▲조영래전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상무·조은숙씨 장남 장근군, 김운수·이미자씨 장녀 주연양=20일(토) 오전 11시30분 광주 윤림제(광주시 동구 동산길 29-0607-1362-6226, 010-2443-1479).
▲심철환·이연주씨 장남 기성군, 김종구(무등축산 대표)·조성순씨 장녀 태인양=20일(토) 낮 12시, 추성창의기념관(담양군 담양읍 죽량문화로 380-061-380-2680, 010-6275-5312).